

# 담양 '죽로차', 국제 차 문화대전서 우수성 홍보

###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대나무밭에서 이슬 먹고 자라 맛·향·색상 신선하고 부드러워...100% 수제 생산

담양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차문화대전(티월드페스티벌)에 참가해 담양 죽로차의 우수성을 알렸다. 티월드페스티벌이 주최·주관하는 국제차문화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차 전시회로, 전세계 차 산업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담양군과 (사)담양죽로차연합회(회장 김계향)는 이번 행사에서 죽

로차 홍보부스를 운영해 담양 죽로차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시음 행사와 한국전통 차 문화체험과 잎차우리기 등 다양한 다례체험도 함께 운영했다.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라는 담양 죽로차는 맛, 향, 색상이 신선하고 부드러우며 100% 수제로 생산한다. 군은 담양 죽로차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 2016년 서울국제차문화대전, 2017~2018년 광주국제차문

화전시회, 2019년 부산국제차문화산업전 그리고 올해 국제차문화대전 등 다양한 참가해 죽로차를 알리고 있다. 또한 담양 대나무밭은 올해 6월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돼 담양 대나무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담양 죽로차의 전국적 홍보로 죽로차 판매 촉진에



힘을 보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나주시, 소상공인 위해 이차보전지원사업 신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시지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

나주시는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의 연 3%이자(약정이자율 중 연 3%이내 지원)를 2년 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수혜 중인 경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제외대상 업종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이차보전 지원계획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시지점(나주시 빛가람로 746, 5타워 6층)에서 하면 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나주시가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대출 취급 기관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한국농어촌공사·aT 분사지점, 광주은행, 나주신협, 나주이화신협, 나주·나주동부·영산포 새마을금고, 기업·하나·신한·우리·KB국민은행(빛가람동소제) 등 관내 14개 금융기관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1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역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꼼꼼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전남신보재단,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곡성군 농특산물, 전국 백화점 돌며 소비자 눈도장 '쾅'

4월부터 2억 3천만원 판매 곡성군이 지난 4월부터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농·특산물 판매전을 펼쳐 2억 3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진

행된 이번 판매전은 총 7차례 9개소에서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서 3차례의 판촉전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4차 판매전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차 판매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7월에는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

티점에서 6차 판매전과 AK백화점 3개점(분당, 수원, 평택)에서 7차 판매전을 개최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인기상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장성군, 장마철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 418개 시설... 비상연락체계 점검·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장성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휴관 중인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일에 시작된 안전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 점검 대상은 장성군 내 418개 사회복지시설이다. 휴관 중인 379개 시설과 부분 운영 중인 39개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장성군은 시설의 침수,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유사 시를 대비해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의 가전제품이 습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지침 이행 실태도

## 화순군, 여름철 재해 대비 '농작물 기술 지원'

### "장마철, 고추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에 힘써야" 당부



화순군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이 연약하게 자라고,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 농작물 기술 지원에 나섰다. 군은 농가에 여름철 재해와 병해충 대비 요령을 안내하며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

고온다습한 환경에 많이 발생하는 고추 탄저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비 오기 전과 후에 적용 약제를 뿌려주고, 병든 고추는 발견 즉시 제거해 주변으로 병균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육이 불량한 농작물은 요소 0.2%액(물 20l에 요소 40g)을 엽면 시비해 주면,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된다. 가축의 경우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급수기를 수시로 청소하고 축사 소독과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에는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일 밤속 한상

# 일상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